

'5일장 복지 상담실' 성과

남원시, 남원공설시장 쉼터에서... 4월까지 730여명에게 1억 지원

선진행정의 공극적 지향점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를 적시, 적기에 제공하는 일이다. 책상에 앉아서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직접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복지행정을 실현하는 필요 조건중 하나. 남원시 희망복지지원단이 이같은 선진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상담실은 올 연말까지 매 5일 장날마다 남원공설시장 내 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담당 공무원을 만나 다양한 복지시책을 설명 듣고 실제 수혜를 받고 있다.

희망복지 상담실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중 집합장소인 5일 장터에서 지역 내 복지 소외계층을

상시 발굴하여 실질적인 복지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희망복지 상담실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고 현장 복지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복지과를 비롯 남원의료원, 전북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희망복지 상담실은 경제적, 의료적, 정서적 이유 등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복지·의료·교육·주거·취업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해에는 총 1,300여명이 상담실을 이용했으며 이들에게 1억 6,400만원의 민관 자

원이 연계됐으며 올해 4월까지만 해도 730여명에 9,700여만원의 자금을 지원, 현장에서 복지행정을 더욱 튼튼하게 다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5일장 희망복지 상담실은 남원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유일한 시책사업으로 시행 초기부터 시민들의 관심과 반응이 높게 나타나자 지금은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앞을 다투어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등 전국적인 관심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담실을 이끌고 있는 김순복 팀장은 "시민이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합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에게 폭넓은 수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책사업을 보완, 강화해 남원시를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복지행정 선진 자치단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어르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

임실군은 어버이날을 맞아 최근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는 어버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 따뜻한 지역 분위기를 조성

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각 읍·면은 소외감 해소를 위해 독거노인 세대를 직접 방문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군청 민원봉사과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어르신에게 할양 체크 및 따뜻한 차를 대접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고창읍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관리사무소, 임차인대표회, 휴먼시아사랑회에서는 어르신들께 케이크를 달아드리고 관소리와 마을공연 등이 펼쳐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고창읍 휴먼시아 아파트 어버이날 행사

고창군 고창읍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관리사무소, 임차인대표회, 휴먼시아사랑회에서는 어르신들께 케이크를 달아드리고 관소리와 마을공연 등이 펼쳐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고창읍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관리사무소, 임차인대표회, 휴먼시아사랑회에서는 어르신들께 케이크를 달아드리고 관소리와 마을공연 등이 펼쳐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하대성 익산국토관리청장 고창군 방문

흥덕·부안 간 4차선 확포장 등 현안사업 공동협력키로

고창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역발전 위한 현안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지난 6일 군에 따르면 최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대성 청장이 고창군을 방문해 박우정 군수와 함께 성송~고창간 4차선 확포장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올 연말 개통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도 23호선(흥덕~부안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성송~고창 간 도로공사 구간 중 고수면 소재지 통과 구간의 통로박스 설치 건에 대해 국토관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군에서도 통로박스 설치로 인한 보상을 조속히 완료하고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방하천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제방보축 등 치수안전성 확보와 하천 내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재만금 방조제 개통에 따른 통행량 증가로 병목구간

해소 및 서해안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국도 23호선 흥덕-부안간 4차로 확장사업이 하루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익산국토관리청에서도 적극 협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하대성 청장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추진단계별로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가기반사업이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공동의 노력을 다하자"며 "익산국토관리청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고창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지사면민 체육대회·화합 한마당잔치' 성료

이종신 씨 효열장·정정순 씨 봉사장 수상

'제44회 지사면민 체육대회 및 화합 한마당잔치'가 지난 7일 지사중학교 교장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향우회원, 지역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00세의 노모를 극진히 봉양한 이종신씨가 효열장을, 크고 작

은 일을 가리지 않고 희생과 봉사활동을 펼쳐 온 정정순씨가 봉사장 수상을 했다.

또한 배구, 육상, 바구니 터트리기, 투호놀이, 고리걸기, 제기차기 등 체육·민속경기와 축하공연 및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돼 주민들이 상호 화합하는 흥겨운 한마당

잔치가 마련됐다.

특히, 어버이날을 기념해 행사에 참석한 5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이벤트를 마련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안영선 체육회장은 "체육대회를 통해 주민화합을 굳건히 하고 애乡심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어린이 민속큰잔치' 개최

임실군은 제94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민속큰잔치'를 오수의 견공원에서 지난 5일 개최했다.

올해 24회째를 맞는 '임실군 어린이 민속 큰잔치'는 1,000여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참석해 비보이 팀 공연과 마술쇼, OX퀴즈, 보물찾기, 장기자랑, 가족이 함께하는 명랑운동회 등 풍성한 볼거리와 다양한 체험거리를 즐겼다.

또한 대형웃놀이,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등 총 14가지 체험에 참여해 손목 띠에 스탬

프를 받아온 어린이에게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는 프로그램은 미션을 달성하는 즐거움으로 어린이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

행사에 참석한 심민 군수는 "이 땅의 주인이며 미래의 주역이 바로 이곳에 있는 어린이"라며, "어린이날 행사를 통해 가족의 사랑을 한껏 느끼고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민속 큰잔치'는 갈수록 다양한 민속놀이와 체험행사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군과 민이 함께 하는 한마당잔치로 발전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춘향제 사랑 나무·허브정원 조성

춘향! 꺼지지 않는 사랑을 주제로 열리는 제86회 춘향제가 행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의 자연과 역사를 담은 남원만의 독창적인 경관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러 가지 경관물들을 연출하여 행사장을 방문한 남원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하며 기억에 남을 만한 포토존을 구성하고자 사랑의 나무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아간 불거리 조성을 위해 아간경관조명을 다양하게 설치하여 춘향제를 즐기는 관광객들에게 아간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꽃과 허브, 조형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작은 정원을 조성한다.

허브산업의 중심도시 '남원허브'를 축계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선보이기 위해 '작은 허브정원 만들기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관한투일 정문 맞은편 도로에 10개의 작은 허브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올해에도 남원 춘향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춘향제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역사와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관한투일 뿐만 아니라 꽃과 허브, 사랑의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허브 정원을 방문객들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산막마을 상수도 7월 공급

임실군이 식수 부족에 시달리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도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나섰다.

강진면 문방리 산막마을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으로 그동안 간이 상수도를 이용해 계곡수를 수원으로 사용했으며, 해마다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계곡 수량 감소로 인해 비상급수차를 활용하여 부족한 음용수를 해결하는 등 기쁨에 따른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15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9,000만원을 확보하고 오는 7월 25일 완공을 목표로 연장 1.10km의 상수도관 부설과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해 15세대에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정책실명 사업 38개 선정

남원시는 정부 3.0의 취지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자 남원시 여건에 맞게 2008년에 정책실명제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고 2013년에 규칙 전면 개정 및 2014년부터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정책실명제 심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완료 사업 12건, 진행 중인 사업 38건을 선정했다.

심의회에서 선정된 사업들은 추진내용 및 관계자 실명 등을 남원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제이엔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